

공개용

본 자료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4-5호)

2024. 10. 17.

무 역 위 원 회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조사대상물품 수입량 및 가격,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및 가격 등 산업피해지표는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 값을 제시하되, 기준연도 값과 환산 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 :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년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등으로 표시함

무 역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의결 제2024-18호

조 사 번 호 구제 23-2024-5호

조 사 건 명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신 청 인 주식회사 포스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대표자 이 시 우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주현수

공인회계사 진성백

피 신 청 인 1. 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¹⁾

2. TVL Joint Stock Company(티브이엘) 및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

3. 그 밖의 공급자

조 사 대 상 물 품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Cold Rolled Stainless Steel)

HS 코드 :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의 결 일 2024. 10. 17.

상기 안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등 관련 규정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다.
2. 위원회는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7.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2호에 따라 피신청인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6%
 - 티브이엘 및 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37%
 - 그 밖의 공급자 : 4.79%

1) 각 피요청인의 주소는 “[별지] 피요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이 유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신청인”)가 2024.4.30. 신청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건(조사개시 : 2024.5.30.)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신청인,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공청회 개최,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이하 “예비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협정 제3.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주문과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의한 본조사를 개시하며,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I. 배경

신청인은 2024.4.30.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조사는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2024.5.30.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신청인 이외에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이하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 대양금속(이하 “대양금속”),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 등으로 조사는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상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용진 메탈테크놀로지 베트남’, ‘티브이엘’ · ‘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 등 2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고,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주식회사 에디녹스 (이하 “에디녹스”), 주식회사 건일상사(이하 “건일상사”), 주식회사 태남에스티(이하 “태남에스티”), 주식회사 굿스틸(이하 “굿스틸”), 주식회사 원스텐(이하 “원스텐”), 주식회사 광일금속(이하 “광일금속”)등 국내 수입자와 수요자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1.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과 제3항은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무역위원회공고 제2024-8호(2024.5.30.)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품명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이고, 관세품목분류(HSK)는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이다.

예비조사보고서²⁾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조사범위는 스테인리스강³⁾ 냉간압연 제품⁴⁾으로서 모든 강종, 형태, 폭·길이·두께의 제품을 포함하고, 표면처리⁵⁾ 및 트리밍 여부를 불문한다.

2) 예비조사보고서 pp.3-5 참조.

3)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하며,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냉간압연제품이란, 열간압연된 제품을 상온에서 표면 처리하고, 정밀 기계로 더 얇게 눌러 표면을 미려하게 만든 제품으로, 고온이 아닌 상온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간압연’이라 칭해지며, 냉간압연을 거쳐 생산된 제품은 통상적으로 ‘냉연강판’이라고 불린다.

5) 열처리, 산세처리, 도금·페인팅 등 표면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 조사대상물품 범위 변경 요청 검토

예비조사보고서⁶⁾에 의하면, 베트남 수출자인 비나 사파이어, 티브이엘과 수입자인 에디녹스⁷⁾는 PVD 방식의 표면 도금제품, 200계 및 400계 강종제품, 협폭제품을 조사대상 물품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PVD 방식의 표면 도금제품

비나 사파이어는 PVD 방식의 표면 도금제품⁸⁾은 일반 스테인리스강 제품과 물리적 특성⁹⁾, 용도¹⁰⁾, 제조공정¹¹⁾, 품질 및 소비자 평가¹²⁾ 등이 상이하고,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¹³⁾ 실질적 피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외요청 물품은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을 단순 추가가공한 것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의에 포함되며, 국내에서 많은 수요자들이¹⁴⁾ 동일한 물품을

6) 예비조사보고서 pp.6~11.

7) 베트남 수출자 비나 사파이어(Vina Sapphire Company Limited)와 조사대상공급자인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 수입자 에디녹스는 공청회('24.7.24) 전후 서면의견을 제출하였다.

8) 물리적 기상 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 PVD) 방식으로 전기 착색도금(TiN, TiC, TiALC 등)한 제품을 말한다.

9) PVD 제품은 일반 스테인리스강 제품과 표면 피막층 구성이 달라 경도, 마찰계수 등의 물리적 특성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0) PVD 제품은 주로 엘리베이터, 건축 내외장재로 사용되어, 일반 스테인리스강 제품과 사용 목적이 상이함을 주장하였다.

11) PVD 제품 표면처리 방식은 신청인 그룹사 가운데 표면처리 전문기업인 포스코스틸리온의 수지류(폴리에스테르, 실리콘, 불소, PVC 등) 도포방식과 설비 및 제조공법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스테인리스강 제품 카탈로그의 제조 공정도에 의하면 표면 마무리에 대한 설명은 소둔산세 및 조질압연 공정만 있고, 표면 마무리의 범위도 No.1, No.2D, No.2B, No.3, No.4, No.8, HL, BA, DULL, EMOSS만 설명되어 있어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12) PVD 제품은 광택도(Glossiness: GU) 600 이상, 표면조도 0.02 μ m 이하 제품으로, 신청인이 생산하는 일반 냉간압연 제품과 품질 및 소비자 인지도가 상이함을 주장하였다.

13) PVD 제품의 평균 수출가격은 xxxUSD/톤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가격인 xxxUSD/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이므로 실질적 피해요인과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14) (주)황금에스티, 삼우스텐레스(주), 세유평강(주) 및 (주)DSP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조사개시결정사항에 관한 공고¹⁵⁾에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는 표면처리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하였고, 제품 모델간 일부 생산방식의 차이는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판단에 고려될 수 없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일부 물리적 특성, 소비자 평가 등의 차이는 하나의 조사대상물품(a product)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차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PVD 방식의 표면 도금제품을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2) 200계, 400계 강종 제품

티브이엘은 200계 강종이 조사대상기간동안 국내산업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바 없어 산업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300계와 화학성분, 물리적 특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400계 강종이 조사대상기간동안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내산업이 200계 강종을 생산하지 않다는 주장과 베트남산 200계, 400계 강종이 한국에 수출된 바 없다는 주장은 신청인의 생산실적, 동건 다른 이해관계인의 제출증거, 관세청 수입통계에 비추어 모두 사실과 다르고,¹⁶⁾ 덤핑방지조치의 회피 우려¹⁷⁾가

15)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무역위원회공고 제2024-8호, 2024.5.30.)

16) 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동안 xxx톤의 200계 제품을 생산하였고, 동건 다른 이해관계인인 비나 사파이어가 제출한 의견서의 증거에 의하면, “당사에서는 PVD방식의 전기착색도금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 냉간 압연제품을 200계 및 300계를 사용하며 300계를 92%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바, 베트남산 200계가 한국으로 수출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세청 수입통계에 따르면,

있어 조사대상물품의 제외에 반대하였다.

조사실은 조사개시결정사항에 관한 공고에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는 모든 강종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고, 조사대상물품범위 안내서에서도 모든 강종을 물품의 분류기준 (CCN)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200계, 400계 강종의 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은 모두 하나의 조사대상물품(a product)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다른 물품으로 제외할 만한 특별한 차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0계, 400계 강종의 제품을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3) 협폭 제품

티브이엘은 620mm의 협폭 코일을 주로 수출¹⁸⁾하는데, 국내산업은 광폭 코일만 생산하므로 상호 경쟁가능성이 없고,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협폭 코일과 광폭 코일은 각기 다른 표면거침과 평탄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폭코일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수입자 에디녹스는 공청회에서 신청인의 협폭제품은 품질의 우위가 있으나, 베트남산 협폭제품은 공정 축소(skin pass, tension)로 원가 절감이 가능하여 가격의 큰

HSK 분류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동안 200계 xxx톤, 400계 xxx톤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하였다.

17) 제강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베트남에서 어떠한 강종의 열연 소재를 수입만 하면, 모든 강종의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0계 및 400계 강종 제외 시, 덤핑방지조치의 회피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8) 티브이엘은 조사대상기간동안 620mm의 협폭 코일을 약 73%, 1,220mm의 광폭 코일을 약 27% 수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우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협폭제품 제외요청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협폭재는 광폭재를 절단하면 제조가 가능한 간단한 물품으로 국내 가공센터들이 다량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수입자 주장과 달리, 신청인 또한 xx
xxxxxxxxxxxxxxxxxxx 생산공정상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협폭재의 조사대상물품 제외요청에 반대하였다.

조사실은 조사개시결정사항에 관한 공고에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는 모든 폭의 제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고, 조사대상물품범위 안내서에서도 모든 폭을 물품의 분류기준(CCN)으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협폭 및 광폭 제품의 일부 생산방식 및 원가의 차이는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판단에 고려될 수 없으며, 일부 물리적 특성 차이 또한 하나의 조사대상물품(a product)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차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협폭 규격의 제품을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3. 국내 동종물품

가. 동종물품 여부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따르면, “동종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비조사보고서¹⁹⁾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과 비교하여 물리적 특성, 용도, 구성요소, 제조공정,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 국내 생산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물리적 특성 및 제조공정, 유통경로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²⁰⁾에 의하면,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 일부 수입자들은 베트남 조사대상물품은 경도가 높아 가공성이 떨어지고, 제품 표면이 일정치 않아 국내 생산품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생산자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품질 기준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철강제품의 특성상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면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고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도 두 제품을 대체가능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은 대체사용되고, 규격안에서 근본적인 품질은 차이가 없으므로 품질 및 소비자 평가는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

19) 예비조사보고서 pp.12-14 참조.

20) 예비조사보고서 pp.13 참조.

질, 소비자 평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말하는 바,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업적으로 대체가능한 동종물품으로 판단한다.

나. 부과제외 관련 검토

1) 200계·400계 강종 제외 요청

예비조사보고서²¹⁾에 의하면, 공급자인 티브이엘 및 티브이엘 스틸은 신청인을 비롯한 모든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동안 200계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베트남산 200계 제품이 한국에 수출된 바 없으므로, 산업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상기 공급자들은 200계 제품은 신청인이 조사를 의뢰한 304계와 화학성분, 경도, 연신율, 용도 등의 특성이 다르므로 제외를 요청하였다.

이에 반해, 신청인은 200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서, 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동안 xxx톤의 200계 제품을 생산하였고, 베트남산 200계 제품이 한국에 수출된 바 없다는 주장 또한 동건 다른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잘못된 것으로 입증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은 관세품목분류(HSK)에 따라 니켈계 여부와 니켈의 함유량으로 200계·400계의 식별이 가능한데, 관세청 수입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200계 xxx톤 및

21) 예비조사보고서 pp.14-15 참조.

400계 xxx톤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강종의 구분은 제강 단계에서 결정되는 바, 베트남에서 어떠한 강종의 열연 소재를 수입만 하면, 모든 강종의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0계 및 400계 강종 제외 시, 우회덤핑의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모두 200계·400계가 포함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해당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다.

2) 협폭제품 및 관세품목분류(HSK) 7220 품목 제외 요청

예비조사보고서²²⁾에 의하면, 공급자인 티브이엘 및 티브이엘 스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620mm 협폭 코일을 약 73%, 1,220mm광폭 코일을 약 27% 수출하였고, 국내생산자는 620mm 협폭코일을 생산하지 않으며, 1,220mm광폭 코일만 생산하므로, 티브이엘 및 티브이엘 스틸은 국내생산자와 경쟁하지 않고,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기 공급자들은 협폭 코일은 광폭 코일과 다른 표면거침과 평탄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협폭코일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수입자인 에디녹스는 신청인의 협폭제품은 품질의 우위가 있으나, 베트남산 냉간압연 협폭제품은 조사대상물품 대비 공정 축소(skin pass, tension)로 원가 절감이 가능하여 가격의 큰 우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협폭제품 제외를 요청하였다.

22) 예비조사보고서 pp.16-17 참조.

이외에도 수입자인 윈스텐은 HSK 7220 품목은 7219 품목보다 수입물량이 훨씬 적고 구조관 파이프 제조업체들은 HSK 7219(폭이 600밀리미터 이상)보다 폭이 좁은 HSK 7220(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을 대신 사용할 수 있으므로 HSK 7220 품목을 부과 제외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llegible]

따라서, 배관용 스테인리스강 신청인 생산물품과 조사대상물품 사이에 생산공정상 실질적 차이는 없는 등 제외요청에 반대하고, 원스텐이 주장하는 특정 HS부호의 품목 역시 협폭재로 품목 제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협폭재가 ‘낮은 가격’ 외에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협폭제품은 광폭제품을 단순 절단하면 가능하므로 협폭제품과 광폭제품의 제조공정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200계·400계 강종, 협폭제품 및 관세품목분류 7220 품목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Ⅲ. 국내산업의 범위 및 비밀취급

1.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과 WTO 반덤핑협정 제4.1조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지 않은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²³⁾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국내총생산량 비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 국내생산자의 조사대상물품 수입 여부, 국내생산자의 당해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23.11.1.~2024.4.30.)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61.1%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illegible]

23) 예비조사보고서 pp.20-22 참조.

[illegible]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용가능한 국내산업 피해지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고,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50%를 초과하여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잠정적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으로 판단한다.

2. 비밀취급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신청서,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보고서²⁴⁾에 의하면, 신청인 등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신청서,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등 비밀취급 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 등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가 비밀취급 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한 점, 비밀취급 요청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자료 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24) 예비조사보고서 pp.27-29.

IV. 덤핑사실

위원회는 덤핑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 및 조사 경과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급자별로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하였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예비조사보고서²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베트남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 · 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²⁶⁾을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조사참여신청기간²⁷⁾ 동안 당초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3개 공급자²⁸⁾가 2024.6.5.~21. 동안 자발적 조사참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조사실은 수출물량 및 조사부담, 적시 조사종결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2024.7.10. 이를 통보하였다.

2. 덤핑사실 조사경과

25) 예비조사보고서 p.37.

26)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티브이엘' · '티브이엘 스틸'은 수입신고시 동일 해외 공급자 부호를 사용하였고, '티브이엘 스틸'의 주소지가 '티브이엘'의 제2공장 소재지로 파악되었으며 (TVL Joint Stock Company 홈페이지: <https://ihbi.com.vn>), 제출된 조사참여신청서 및 답변서에서도 두 회사는 관계사로 확인되었다.

27) 조사참여 신청기간 : 2024. 6.5. ~ 6.28.

28) 자발대응을 신청한 'Vina Sapphire Company Limited(2024.6.21. 자발신청)', 'Sonha SSP Vietnam Sole Member Company Limited(2024.6.13. 자발신청)', 'Hoang Vu Company Limited(2024.6.5. 자발신청)'가 이에 해당하며, 해당 수출자의 대한국수출물량은 각각 xxx%(xxx순위), xxx%(xxx순위), xxx%(xxx순위)이다.

예비조사보고서²⁹⁾에 의하면, 조사실은 2024. 6. 5. 덤핑률 조사를 위하여 WTO 반 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 (답변기한 : 2024.7.16.)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 등을 발송하였다.

‘용진 메탈’과 ‘티브이엘’·‘티브이엘 스틸’은 2024.6.21. 기한내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의사를 표명하였다.

‘용진 메탈’과, ‘티브이엘’·‘티브이엘 스틸’은 ‘24.7.8.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각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024.7.16.이었던 답변기한을 2024.7.22.로 연장하고, 2024.7.10. 이를 통보하였다.

‘용진 메탈’과 ‘티브이엘’·‘티브이엘 스틸’은 모두 연장된 기한인 2024.7.22.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2024.9.3. ‘용진 메탈’과 ‘티브이엘’·‘티브이엘 스틸’에게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다.(답변기한 : 2024.9.10.)

‘용진 메탈’은 2024.9.6. 보충질의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답변기한을 2024.9.13.로 연장하고, 2024.9.9. 이를 통보하였다.

‘티브이엘’·‘티브이엘 스틸’은 2024.9.6. 보충질의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답변기한을 2024.9.12.로 연장하고, 2024.9.9. 이를 통보하였다.

29) 예비조사보고서 p.30.

조사실은 예비판정 전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2024.10.4.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온라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인이 덤핑 조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가.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³⁰⁾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베트남 띠엔장성(Tien Giang)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로, xxx. xxx로 등록되었으며, xxx부터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하였다.

피신청인의 지분은 xxx xxx xxx xxx인 xxx³¹⁾, xxx³²⁾이 각각 xxx%, xxx% 보유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약 xxx톤 생산하여, 내수시장에 약 xxx톤을 판매하였고, 한국에 약 xxx톤, 제3국에 약 xxx톤을 수출하였다.

피신청인은 xxx xxx xxx xxx xxx로부터 xxx%의 열간압연 원재료를 구매³³⁾하였

30) 예비조사보고서 p.31.

31) xxx으로 답변서에서 확인되었다.

32) xxx으로 답변서에서 확인되었다.

33)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구매한 열간압연 xxx 강종의 원재료 가운데 xxx%를 xxx xxx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한국시장을 포함한 모든 수출판매에 대하여 xxx xxx³⁴⁾와 xxx에게 거래처 소개 및 판매계약, 결제 진행을 위한 커미션을 지급³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주요 원재료 공급자인 xxx로부터 xxx%의 열간압연 원재료를 구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에서 주요 원재료 공급자와 직간접적 지분관계 등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주요 원재료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요 원재료 공급자의 거래 비중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과 원재료 공급자간 특수관계 여부, 사업상 밀접한 통제 관계 등에 대해서 본조사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³⁶⁾,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³⁷⁾의 내수 및 대한국 수출판매,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조정요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예비덤프를 산정하였다.

다만, 제조원가의 경우, 관계사³⁸⁾로부터 구매한 원재료비가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들로부터 구매한 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³⁹⁾하였다.

34) xxx)이 주요 사업활동으로 xxx으로 답변서에서 확인되었다.

35) 다만, 물품공급계약 및 상업송장 발행, 물품의 배송, 대금지급은 피신청인과 한국 거래처간 이루어진 것으로 답변서에서 확인되었다.

36) 예비조사보고서 p34.

37) 조사실은 보충질의에서 주요 원재료 구매 관련 관계사 현황, 관계사의 주요 원재료 구매 세부내역, 수출판매 중 매 xxx번째, 내수내수 판매 중 xxx번째 거래증빙, 판매 및 제조원가의 CCN 구성방식 및 CCN별 제조원가의 단계별 산출근거, 시설투자 및 운영비용 조달 내역 등에 관하여 추가 질의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38)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구매한 열간압연 xxx 강종의 원재료 가운데 xxx%를 xxx xxx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조사실은 피신청인과 주요 원재료 공급사인 xxx⁴⁰⁾와의 특수관계 여부, 구매 원재료의 적정 시장가격 여부, 피신청인의 관계사 현황 관련 직간접적 지분관계 및 사업상 밀접한 통제관계 등에 대해서는 본조사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생산원가와 관련하여, CCN 분류에 따른 제조원가의 적정 반영 여부⁴¹⁾, 투자·운영비용에 대한 관계사 차입비용의 시장이자율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본조사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⁴²⁾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⁴³⁾,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39) 피신청인의 제조원가를 xxx%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조원가 상향 비율은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라고 답변한 원재료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가중평균 가격과 관계사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의 차이율에 공급자별 구매비중, 제조원가 비중을 고려하여, 강종별 상향 비율(xxx xxx%, xxx xxx%, xxx xxx%)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적용하였다.

40) 피신청인은 제조원가의 xxx%를 차지하는 열간압연 원재료를 xxx로부터 약 xxx% 구매하였다.

41) 피신청인은 제조원가의 CCN 구성방식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생산된 xxx를 중심으로 생산 및 판매 자료를 수작업으로 확인하여 CCN을 분류하였다고 답변하고, 제품코드(PRODCOD) 및 CCN 제조원가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실에서는 이를 회계 시스템과 연결하는 등의 추가 검증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42)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CN) 구성방법으로 등급, 강종, 가공 정도, 호칭두께, 표면처리, 호칭폭, 금속코팅 여부, 비금속코팅 여부, 형상, 트리밍을 기준으로 제시를 제시하였다.(이하 같다)

43) 예비조사보고서 pp.36~39.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관계사에게 내수판매한 거래가 없었다. 따라서 조사실은 모든 CCN에 대하여 순송장가격과 생산원가⁴⁴⁾를 비교하여,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이상인 경우에는 원가이상 판매를, 20%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를 정상가격 산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결과,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에 대하여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⁴⁵⁾하였다.

이에 따라,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및 충분성 검증 결과 정상 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및 금융비용과 적정 이윤을 합산한 구성가격을 적용하였다.

정상가격 조정요소는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를 적용하였다. 내륙운반비 및 핸들링 비용은 송장별 실제 발생된 금액을, 신용비용은 베트남 xxx⁴⁶⁾ 은행의 단기금리(xxx%)를, 은행수수료는 거래처별 매출액 기준 배분금액을, 포장비는 포장유형별 단위당 비용을 배분하여 적용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⁴⁷⁾,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직접 한국에 수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한국에 수출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였다.

44)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구성가격으로 적용하였다.

45)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총 내수판매량은 대한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전체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하였다. 다만, CCN별 내수판매량의 경우, 해당 CCN의 한국 수출량 대비 내수판매량이 5% 미만인 경우, 구성가격을 적용하였다.

46) xxx

47) 예비조사보고서 p43

다만,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한 수입상 xxx와의 특수관계, 보상약정 유무 등에 대해서는 본조사에서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덤핑가격 조정요소는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포장비용을 적용하였다.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는 송장별 실제 발생된 금액을, 신용비용은 베트남 xxx⁴⁸⁾ 은행의 단기금리(xxx%)를, 은행수수료는 거래처별 매출액 기준 배분금액을, 커미션은 관계사⁴⁹⁾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을, 포장비는 포장유형별 단위당 비용을 배분하여 적용하였다.

다만, 조사실은 관계사에게 지급한 커미션의 경우, 거래처 소개, 계약체결, 결제 진행 등 수출 판매비용으로서 적정 금액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본조사를 통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 받은 가격을 CIF⁵⁰⁾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공정비교를 위해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3.66%의 예비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48) xxx

49) xxx

50)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 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나.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 및 티브이엘 스틸(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⁵¹⁾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베트남 하노이(Ha Noi) 및 흥옌(Hung Yen)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약 xxx톤 자체 생산하여, 내수시장에 약 xxx톤을 판매하고, 한국에 약 xxx톤, 제3국에 약 xxx톤을 수출하였다.

티브이엘은 티브이엘 스틸의 지분을 xxx%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인(xxx)이 양사의 대표 이사를 겸하고 있는 바, 조사실은 두 피신청인을 단일경제실체로 간주하고, 단일 덤핑률을 적용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⁵²⁾,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⁵³⁾의 내수 및 대한민국 수출판매,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조정요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예비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51) 예비조사보고서 p.48.

52) 예비조사보고서 pp.49~50.

53) 조사실은 보충질의에서 CCN 구성방식 관련 상세 원천 증빙, 수출판매 중 매 xxx번째, 내수내수 판매 중 xxx번째 및 xxx번째 거래증빙, 대표 CCN 제조원가의 상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등에 관하여 추가 질의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⁵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관계사에게 내수판매한 거래가 없었다. 따라서 조사실은 모든 CCN에 대하여 순송장가격과 생산원가⁵⁵⁾를 비교하여,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이상인 경우에는 원가이상 판매를, 20%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를 정상가격 산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결과,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에 대하여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⁵⁶⁾⁵⁷⁾하였다.

54) 예비조사보고서 pp.50~53.

55)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구성가격으로 적용하였다.

56)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총 내수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전체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하였다. 다만, CCN별 내수판매량의 경우, 해당 CCN의 한국 수출량 대비 내수판매량이 5% 미만인 경우, 구성가격을 적용하였다.

57) 피신청인은 2024.10.4. 이해관계인회의에서, ①무역위원회의 조사관행, ②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2항의 해석, ③미국 상무부의 적용방식(19 CFR 351.404, 매뉴얼), ④UN의 반덤핑제도 소개자료(Dispute Settlement in Anti-Dumping Measures)를 근거로, 충분성 검증은 원가미만 검증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통상의 상거래가 아닌, 원가미만 판매를 포함한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충분성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무역구제청(TRAV: Trade Remedies Authorities of Viet Nam), 주한 베트남 대사관)도 국제적 관행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실에서는, ①관계사 거래 및 원가미만 판매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체물량으로 충분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 할 수 있는 바, 통상의 거래로 충분성을 판단하는 것은 기존 관행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으로 판단하였다. ②관련 규정인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1항,

아울러,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및 충분성 검증 결과 정상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및 금융비용과 적정이윤을 합산한 구성가격을 적용하였다.

정상가격 조정요소는 내륙운반비, 신용비용, 포장비를 적용하였다. 내륙운반비, 포장비는 총발생금액을 판매물량으로 배분한 금액을, 신용비용은 베트남 xxx의 대출금리(%)를 적용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용비용에 있어, 내수판매 금리(%)와 수출판매 금리(%)를 달리 적용하였는 바, 조사실은 차이 내역 및 실제 각 금리가 수출 및 내수 판매에 관련된 비용으로 구분되어 적용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본조사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⁵⁸⁾, 피신청인은 한국의 수입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생산하여, 한국에 직접 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의 순 송장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하였다.

2항에서는 원가미만, 충분성 검증 적용순위를 정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당국은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구체적 적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원가미만 검증)과 제2항(충분성 검증)은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각 조사당국마다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다양한 검증방식이 존재하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원가미만 검증 후 충분성을 검증하는 순서로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미국 사례를 제시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도 전체물량에 대해서만 충분성을 판단하고 모델별 충분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무역위원회는 전체 충분성을 검증한 후, 모델별 충분성을 검증하고 있다.) ④아울러 신청인이 주장한 UN 자료는 WTO와는 무관한 제3의 기관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사실은 정상가격 산정 시, 관세사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검증을 통해 통상의 상거래에 해당하는 내수판매를 판단한 후 이를 수출판매와 비교가능한 충분한 물량인지 검증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58) 예비조사보고서 p.43.

덤핑가격 조정요소는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포장비용을 적용하였다.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은행수수료, 커미션은 거래건별 실제 발생된 금액을, 신용비용은 베트남 xxx의 단기금리(xxx%)를, 포장비용은 단위당 비용을 배분하여 적용하였다.

다만,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정요소로 제시한 환차손익은 수출판매 후 수취한 달러 금액과 이를 베트남동(VND)로 회수 시 발생하는 기타 매출 증감과 관련된 것일 뿐, 수출판매시 결정된 덤핑가격과 무관하므로,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수출과 내수판매의 포장비용 차이가 없는 점, 수출과 내수 신용비용의 이자율이 상이한 점, 거래건별 실제 발생된 금액으로 보고한 조정요소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본조사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⁵⁹⁾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공정비교를 위해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11.37%의 예비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59)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따라 산정한 예비 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다. 그 밖의 공급자

예비조사보고서⁶⁰⁾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예비덤핑률을 대한국 수출 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공급자인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 ‘티브이엘’·‘티브이엘 스틸’의 예비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4.79%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고 결정한다.

60) 예비조사보고서 p.59.

V. 국내산업의 피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고, (a)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해야 하며,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재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및 가격 효과와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량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

흐름,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예비조사보고서⁶¹⁾에 따르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21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3963.5% 증가하였고, 2023년 xxx톤으로 59.7%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705.5% 증가하였는바,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22년 xxx%로 전년대비 7.9%p 상승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전반적으로 상승(변동폭 13.5%p)하였으나,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하여 조사대상기간 전반적으로 하락(변동폭 △10.9%p)하였다. 이외에도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22년 전년대비 6.0%p 하락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전반적으로 하락(변동폭 △2.6%p)하였다.

조사대상기간동안 덤핑물품의 연평균 수입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705.5%)하였으나, 국내동종물품의 연평균 내수판매량(△21.8%)은 연평균 국내소비(△13.1%) 및 기타국산 수입량(△15.8%)보다 감소하여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인 증가가 확인되었다.

61) 예비조사보고서 p.63 참조.

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예비조사보고서⁶²⁾에 따르면,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2년 xxx천원, '23년 xxx천원으로 2023년은 전년대비 19.5% 하락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3% 하락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2년 xxx천원, 2023년 xxx천원으로 '23년은 전년대비 7.9% 하락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8%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보다 상승폭이 적고, 하락폭이 크며,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차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2023년 가격차이가 전년대비 xxx% 감소하여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비해 xxx% 차이로 저가에 판매되었다.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23.5% 상승하였으나, 2023년 전년대비 19.5%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3% 하락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33.3% 상승하고, 2023년 전년대비 7.9% 하락하였다.

조사실은 2023년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xxx% 차이로 저가로 판매되었고,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전년대비 19.5% 하락하여 국내 동종물품은 전년대비 7.9%하락시켰다고 검토하였다.

62) 예비조사보고서 pp.65-67 참조.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22년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는 전년대비 36.9% 상승하였으나, 덤핑물품은 전년대비 23.5% 상승하였다.

조사실은 국내 동종물품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예비적으로 억제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목표판매가격 대비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실의 분석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 및 가격상승 억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예비조사보고서⁶³⁾에 따르면 일부 수입자들은 덤핑물품의 판매가격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비교 시 강종을 동일하게 한다면 덤핑물품의 가격인상 억제가 심각한 수준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2022년 덤핑물품 판매가격은 컬러 스테인리스 제품이 포함되었으나, 국내 동종물품은 200계·300계 강종만 있어 가격비교가 왜곡되었으므로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에도 단가가 높은 컬러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 생산자인 신청인은 수입자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200계·300계

63) 예비조사보고서 pp.68-69 참조.

강종 가격만 비교시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가 더 확대되므로 가격측면에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더욱 명확하게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격측면에서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준 바 없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급증한 2023년 가격하락유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인 덤핑물품의 조사범위는 ‘모든 강종, 형태, 폭·길이·두께의 제품을 포함하고, 표면처리 및 트리밍 여부를 불문’(II.1.‘조사대상물품’ 참조)하므로, 컬러 스테인리스 제품은 덤핑물품에 포함되므로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에 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은 덤핑물품 전체의 평균가격이 국내산업 전체의 평균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검토하였다.

이 외에도 일부 수입자들은 신청인이 2018년부터 KS규격에 없는 304GS 강종을 생산하여 정품보다 10~15% 싸게 판매하므로 가격비교 대상을 수입대응재인 304GS 강종으로 수정하면 피해의 이해가 달라질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POSCO 304GS 강종은 신청인이 생산하는 품목 중 하나로 비중이 작고, 각 강종이 모두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해당 강종을 비정품이라는 수입자측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 국내산업의 피해분석은 국내산업이 생산 및 판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검토하는 바, 국내산업의 판매가격은 답변서를 제출한 생산자의 모

든 동종물품의 평균가격과 덤핑물품 전체의 평균 가격을 비교하므로 수입품 전체 평균 가격과 국내 특정품목만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고 검토하였다.

3.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생산량 및 가동률

예비조사보고서⁶⁴⁾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간 xxx톤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2021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31.4% 감소하다 2023년 xxx톤으로 6.2%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4.7%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 가동률은 2021년 xxx%에서 2022년 xxx%로 30.9%p 하락하였고, 2023년은 xxx%로 2021년 대비 26.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가동률이 하락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2) 판매 및 재고

예비조사보고서⁶⁵⁾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으로 22.9% 감소, 2023년 xxx톤으로 20.8% 감소하는 등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

64) 예비조사보고서 p.71 참조.

65) 예비조사보고서 p.71 참조.

균 21.8% 감소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2022년에는 전년대비 62.9%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2년 생산량이 전년대비 31.4% 감소한 것에 기인하였으나, 2023년에는 232.7%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1.2%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감소하였고, 기말재고가 상승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한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한다.

3) 시장점유율

예비조사보고서⁶⁶⁾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1년 xxx%에서 2022년 xxx%, 2023년 xxx%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0.9%p 하락하였다. 이에 반하여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3.5%p 상승하였다. 이 외에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1년 xxx%, 2022년 xxx% 하락하였으나, 2023년 xxx%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동안 2.6%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조사실은 기타국산 수입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조사 시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추세가 상반된 변동을 보이고 있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66) 예비조사보고서 p.72 참조.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덤핑마진의 크기

예비조사보고서⁶⁷⁾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2021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으로 36.9% 상승, 2023년 xxx천원으로 8.1% 하락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2.1% 상승하였다. 특히 2022년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는 전년대비 36.9% 상승하였으나, 덤핑물품은 전년대비 23.5% 상승하여 국내 동종물품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예비적으로 억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저가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⁶⁸⁾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예비덤핑률은 3.66~11.37%로 덤핑마진의 크기가 미소마진 이상이므로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덤핑마진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5) 이윤

예비조사보고서⁶⁹⁾에 따르면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 국내시장 매출액은 2023년 xxx백만원으로 27.0%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4% 감소하였고, 내수부문

67) 예비조사보고서 pp.73-74 참조.

68) 예비조사보고서 p.74 참조.

69) 예비조사보고서 pp.74-75 참조.

영업손익은 2021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으로 84.3% 감소하였고, 2023년 xxx백만원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1년 xxx%에서 2022년 xxx%, '23년 xxx%로 연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덩핑물품의 수입에 따라 국내산업의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6) 투자수익률

예비조사보고서⁷⁰⁾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투자자산총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계산된 투자수익률은 2021년 xxx%에서 2022년 xxx%로 전년대비 1.9% 하락 후, 2023년 △xxx%로 전년대비 △3.5%p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 현금흐름

예비조사보고서⁷¹⁾에 따르면 동종물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1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으로 261.1% 증가하였다가, 2023년 xxx백만원으로 65.7%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덩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국내산

70) 예비조사보고서 p.75 참조.

71) 예비조사보고서 pp.75-76 참조.

업의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8) 고용 및 임금

예비조사보고서⁷²⁾에 따르면 국내생산자의 연평균 고용인원(생산직+사무직)은 2021년 xxx명에서 2022년 xxxx명으로 3.2%, 2023년 xxx명으로 1.8%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동안 연평균 52.5%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임금은 2021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으로 3.2% 증가하였고, '23년 xxx백만으로 6.1% 감소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동안 연평균 5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9) 생산성

예비조사보고서⁷³⁾에 따르면 1인당 매출액 및 부가가치 지표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58.1~87.4% 감소 수준으로 부정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1인당 매출액은 '22년에는 전년대비 2.0%, '23년에는 전년대비 14.4% 하락하였고, 1인당 부가가치는 '22년에는 전년대비 56.9%, '23년에는 전년대비 38.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성장성

예비조사보고서⁷⁴⁾에 따르면 내수영업이익은 2022년 전년대비 84.3%, 2023년 적

72) 예비조사보고서 pp.76-77 참조.

73) 예비조사보고서 p.77 참조.

74) 예비조사보고서 p.78 참조.

자로 전환하였고, 시장점유율은 2022년 전년대비 2.0%p, 2023년에는 전년대비 9.0%p 하락하였다. 또한 가동률은 2022년 전년대비 30.9%p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4.2%p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자본조달능력

예비조사보고서⁷⁵⁾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적자전환되어, 내부 자본 조달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예비조사보고서⁷⁶⁾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매년 설비투자를 했는 바,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은 xxx백만원 등 조사대상기간 동안 설비투자 금액은 연평균 1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개발의 경우,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4.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종합 검토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동종물품의 가동률 하

75) 예비조사보고서 p.78 참조.

76) 예비조사보고서 p.79 참조.

락, 판매량 감소, 영업이익의 감소, 투자수익률 감소, 현금흐름 악화, 1인당 부가가치 하락 등 국내산업피해에 관련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국내산업 주요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실질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덤핑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상대적으로 급증하였고, 시장점유율도 증가한 반면,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점유율은 감소하였고, 덤핑물품이 국내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여 조사대상기간동안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비적으로 판단한다.

4.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수입품이 동 협정 제3.2조와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덤핑물품 수입의 절대적·상대적 물량 및 가격이 국

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및 가격에 미친 효과(물량 및 가격효과),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미친 영향 등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와 덤핑물품 수입 이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예비조사보고서⁷⁷⁾에 따르면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와 관련하여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효과 및 가격효과)와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연평균 705.5%)했고, 국내시장 점유율도 xxx%에서 xxx%로 크게 증가(조사대상기간 중 13.5%p)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점유율은 xxx%에서 xxx%까지 조사대상기간 동안 10.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덤핑물품 판매가격은 2023년 전년대비 19.5% 하락하였고, 동종물품 대비 xxx% 저가로 판매되었다. 특히, 2022년 원재료 국제 시세 급등(니켈 47.1%, 크롬 45.6%)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33.3% 상승했으나, 덤핑물품은 23.5% 상승에 그쳐 동종물품은 목표가격 대비 xxx% 수준으로 판매되는 등 동종물품의 가격인상 억제와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의 경우, 원재료 국제 시세 하락(니켈 21.3%, 크롬 16.9%)으로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⁷⁷⁾ 예비조사보고서 pp.82-83 참조.

19.5% 하락하여 국내동종물품 대비 xxx% 수준으로 판매되었는 바, 동종물품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은 2023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 생산량은 연평균 14.7% 감소, 내수판매량은 연평균 21.8% 감소, 가동률은 26.7%p 하락했고, 재고율은 3.5%p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피해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국내산업은 생산량 및 가동률의 하락, 판매량 감소 및 시장점유율 하락하였고, 영업손실이 악화되는 등 예비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1)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예비조사보고서⁷⁸⁾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이외 기타국산 수입물량은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으로 2022년에는 전년대비 31.4%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2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도 2022년에는 전년대비 6.0%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2.6%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연평균 13.2% 증가

⁷⁸⁾ 예비조사보고서 p.85 참조.

하였으나, 덤핑물품의 연평균 판매가격은 0.2% 하락하여 기타국산 물품의 가격 효과가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만, 조사실은 기타국산 물품의 판매가격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것에 대한 영향은 본조사에서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고, 연평균 판매가격 수준이 덤핑물품보다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2) 국내소비 변화

예비조사보고서⁷⁹⁾에 따르면 국내소비는 2021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20.2% 감소 후 2023년 xxx톤으로 5.5% 감소하여 2022년에는 전년대비 20.2%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1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22.9% 감소, 2023년 xxx톤으로 20.8% 감소하여 국내소비의 감소율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2021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3963.5% 증가하였고, 2023년 xxx톤으로 59.7% 증가하는 등 국내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0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가 감소하였고,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내소비 감소보다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가 국내

79) 예비조사보고서 p.86 참조.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3) 수출 실적

예비조사보고서⁸⁰⁾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021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41.8% 감소하였고, 2023년 xxx톤으로 39.6%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중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로 xxx~xxx%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2022년 수출량이 전년대비 41.8% 감소와 관련하여 생산량 31.4% 감소, 기말재고 62.9% 감소 등에 대한 영향은 본 조사에서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수출 관련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은 회계처리 시 별개로 산정되므로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관련 매출 및 영업이익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4) 주요 원재료 가격추이

예비조사보고서⁸¹⁾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에서 xxx% 수준으로, 주요 원재료는 니켈, 크롬, 스크랩으로 조사되었다. 니켈의 톤당 가격은 2021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으로 47.1% 상승 후

80) 예비조사보고서 p.87 참조.

81) 예비조사보고서 p.88 참조.

2023년 xxx천원으로 21.3%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7.6% 상승하였고, 크롬의 톤당 가격은 2021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으로 45.6% 상승 후 2023년 xxx천원으로 16.9%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0% 상승하였으며, 스크랩의 톤당 가격은 2021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으로 34.6% 상승 후 2023년 xxx천원으로 23.2%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공급자 및 일부 수입자들도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원자재 가격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판매가격의 xxx~xxx%로 높은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비가 2022년 니켈 47.14%, 크롬 45.6%, 스크랩 34.6% 상승하는 동안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2022년 33.3%로 상승 후 2023년에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률(니켈 $\Delta 21.3\%$, 크롬 $\Delta 16.9\%$, 스크랩 $\Delta 23.2\%$)보다 낮은 수준인 $\Delta 7.9\%$ 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조사실은 원재료비의 증감보다는 덤핑물품이 저가 판매 및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 억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5) 태풍 힌남노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영향

예비조사보고서⁸²⁾에 따르면 일부 공급자 및 수입자는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

82) 예비조사보고서 pp.89-90 참조.

판매량 및 영업이익 등 감소는 덤핑물품의 수입증가가 아닌 태풍 힌남노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급자 및 수입자는 2022. 9. 6.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신청인 스테인리스강 공장이 침수되어 모든 공장 생산 중단으로 스테인리스 냉연 1공장이 재가동되는 135일간 (2022.9.6.~2023.1.19.) 공장 가동이 불가하여 2022년 및 2023년에 생산량, 매출 등이 감소하고 생산능력이 상실되었으며, 태풍으로 인한 파손 설비복구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 실적자료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영업손실은 13,400억원이고, 7,904억원의 생산 및 판매 감소에 영향을 받았으며,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공급자는 2023. 12. 25. 신청인의 포항공장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이는 생산 및 내수시장 판매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생산자인 신청인은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 판매량 및 영업이익 등 감소는 태풍 힌남노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영향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특히 2023년은 태풍 힌남노와 무관하므로 수입물량이 급감해야 하고, 2023년 영업이익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22. 5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023년 적자전환된 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아닌 덤핑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화재발생은 2023. 12. 23. 화재가 발생한 당일부터 공장이 재가동되었으므로 신청인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화재발생에서 기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화재발생에 대한 피해는 근시일내에 복구되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다. 그러나, 국내산업 피해가 2022.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에 의한 것인지, 덤핑수입물품의 급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본 조사에서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6) 국내 철강업계 사정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발생 여부

예비조사보고서⁸³⁾에 따르면 일부 수입자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의 반덤핑 조치로 국내 동종물품의 수입 및 공급이 제한적이었고, 국내 제조사 공급 축소로 제품 공급 차원에서 베트남산 냉간압연이 수입되었으므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동종물품이 반덤핑 조치 이후 수입물량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현대제철의 동종물품 생산 중단 및 포스코 코일센터 사업중단 결정으로 국내 공급량이 감소된 것이라고 수입자들은 주장하였다. 또한 2023년 현대제철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 중단,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의 전면 파업이 국내 출하량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생산자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어 덤핑물품이 수입된 것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덤핑물품의 물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의 반덤핑 조치의 본래 의도는 감소된 수입물량 만큼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나, 덤핑물품이 이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코일센터 사업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산업의 피해지표에는 현대제철 내지 현대비앤지스틸의 자

83) 예비조사보고서 pp.90-91 참조.

료는 신청인의 피해 지표에 산입되어 있지 않고, 현대제철의 사업철수나 현대비앤지스틸의 파업 등은 덤핑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악화된 국내 동종물품 시장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국내 생산자인 신청인은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국내산업”은 답변서를 제출한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사업⁸⁴⁾인 바, 현대제철 및 현대비앤지스틸은 국내산업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수입자들이 주장하는 국내 철강업계 사정에 의한 영향보다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년대비 급증(2022년 3963.5%, 2023년 59.7%)하여 국내산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토하였다.

(7)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

예비조사보고서⁸⁵⁾에 따르면 일부 수입자는 신청인, 현대비앤지스틸, 대양금속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 악화의 주요 원인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발 금리인상과 수요산업의 침해, 수요산업 부진이라고 명시되었으므로 신청인측 영업이익 악화의 주요원인이 베트남산 소재수입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생산자는 관련 회사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바와 같이 전 세계적 인 경기침체가 있는 것은 사실로 국내 수요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모든 생산자의 시장 점유율은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내 시장 점

84) 본 의결서 III.1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참조.

85) 예비조사보고서 pp.91-92 참조.

유율에서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 덤핑물품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업 피해가 가속화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덤핑물품의 저가수입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국내생산자는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전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이 국내 동종물품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덤핑물품의 수입량 및 시장 점유율 급증, 저가판매 등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8) 기타 요인

예비조사보고서⁸⁶⁾에 따르면,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 검토사항으로 열거된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양자간의 경쟁, 국내산업의 생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실에 제출되지 않았다.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조사실은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직접적 가격 경쟁 관계에 있는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 점유율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감소하였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덤핑물품이 저가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86) 예비조사보고서 p.92 참조.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고, 가동률 및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감소되었다고 검토하였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국내산업의 주요지표인 영업이익의 급감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한편, 조사실은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 및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여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국내소비 감소폭보다 동종물품 판매량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국내산업의 수출,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같은 시점에서 덤핑물품의 수입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덤핑 물품의 수입에 인한 것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5.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 검토

예비조사보고서⁸⁷⁾에 의하면 일부 수입자들은 본 조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수입자인 태남에스티는 베트남 용진의 스테인리스 BA제품(냉간압연 후 광휘 열처리한 것)은 가전, 주방 용도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국내 BA생산업체가 제한적이므로 파업발

87) 예비조사보고서 pp.94-96 참조.

생 시 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대비 고가로 수입 되므로 반덤핑관세 부과가 확정된다면 쿼터량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굿스틸은 신청인의 2022년 순이익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반덤핑 관세는 신청인의 독점이익을 보장해 준 것이므로 본 조사에서는 국내산업으로 정의되는 신청인의 피해·손실이 덤핑보다 환경적·내부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성에스티는 덤핑물품의 생산력과 수입량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과 유사한 수준이 아니고,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치가 신청인측에는 이익이 되나 중소기업에는 위협이 되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건일상사는 베트남과 한국산 스테인리스강의 교역규모가 유사하므로 덤핑물품은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스테인리스 제품의 포스코 국내 가격이 포스코 베트남 및 중국 가격보다 높아 국내 수요자들이 포스코 제품을 베트남 또는 중국기업보다 비싸게 사는 것이 의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베트남산 수입 제품의 60% 정도는 스테인리스 구조관 파이프용 소재이나, 반덤핑 제소로 그 소재 품목인 베트남산 저가 코일의 수입이 막힐 경우 베트남의 구조관 파이프 회사들이 직접 수출하게 되어 국내 스테인리스 구조관 파이프 제조시장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내생산자인 신청인은 태남에스티 주장에 대해 베트남 용진산

BA제품은 신청인을 포함한 국내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고, 중국 용진산 BA제품의 수입 급감으로 국내 BA제품 수급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으며, BA제품의 공급부족 발생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굿스틸 주장에 대해 신청인의 2022년 감사보고서는 당시 신청인의 물적 분할로 2022년 3월~12월 기간만 포함되어 1,2월 모두 포함 시 매출액, 영업이익 및 순이익 등은 전년대비 감소되었고, 국내 동종물품의 경우도 국내생산자 답변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2년에는 전년대비 모두 감소되었으므로 주장한 사실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해성에스티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수요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나, 저가의 덤핑수입 소재에 의존하면서 촉발된 가격경쟁이 수요산업이 겪는 어려움의 큰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요산업 역시 시장 구조 재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긴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일상사의 주장에 대해 베트남과 한국의 스테인리스 전체 교역 규모상 적자인 국가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고, 연도별 교역수치도 관세청 수출입 통계확인 결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포스코의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가격 차이에 대한 기준 및 근거자료가 불명확하고, 가격차이의 존재가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사실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구조관 파이프의 수입급증은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 수치와 다르거나, 덤핑물품 60% 이상의 공급자가 용진 베트남으로 구조관 파이프 제조사들의 한국수출 자체가 많지 않아 해당 회사가 파이프 수출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명확한 근거없이 미래 발생여부를 예측한 단순 주장(태남에스티), 국내 동종물품이 아닌 회사 전체에 대한 이익 주장(굿스틸) 및 상생방안을 제안(해성에스티)한 일부 수입자들의 의견에 대해 본 조사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사실은 건일상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국간 교역 규모가 국내 산업피해 검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가격차이에 대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자료에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산업 피해는 포스코 관계사(베트남 및 중국 등)가 판매하는 가격이 아닌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라고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산업 피해는 베트남의 한국 수출 물량(베트남 관세청 수입량)이 아닌 베트남에서 수입물량(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의한 피해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검토하였다.

VI. 잠정조치 건의

예비조사보고서⁸⁸⁾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연평균 705.5%)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도 상승(13.5%p)하였고,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2023년 전년대비 19.5% 하락하였으며, 동종물품 대비 xxx% 저가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상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량, 판매량은 모두 감소하였고, 가동률은 하락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은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의 영업손실 등으로 이어져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기간동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 공급자별 예비덤핑률(3.66%~11.37%)에 해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88) 예비조사보고서 pp.59-98 참조.

적 용 법 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및 제32조
-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5조 및 제71조
- WTO 반덤핑협정 제1조 내지 제6조 등

붙 임 자 료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

1.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mpany Limited)
: Lot 132A, 133A, 135, 136A Long Giang Industrial Zone, Tan Lap 1 Ward, Tan Phuoc District, Tien Giang Province
2. 티브이엘 및 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
 - (1)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 No. 14b, Alley 6, Van Phuc Str, Kim Ma Ward, Ba Dinh Dist, Ha Noi, Vietnam
 - (2) 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 Bui Village, Cam Xa Commune, My Hao District, Hung Yen Province, Vietnam